

중부지방 장마 대비 수해 방지 대책 긴급점검

-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, ‘장마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’ 개최

□ 행정안전부는 내일(19일) 중부지방에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오늘(18일)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‘장마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’를 개최*했다.

* 참석: 국조실, 과기교육국방·행안·농식품·산업·복지·환경·고용·국토·해수부, 경찰·소방·국가유산·농진·산림·기상·해경, 17개 시도, K-water, 한국수력원자력, 한국농어촌공사, 한국도로공사

○ 기상청에 따르면, 올해는 중부지방이 남부지방보다 먼저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, 19일(목)부터 21일(토)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2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.

□ 이번 회의에서는 동일한 유형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, 기관별 수해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.

○ 기상청은 최근 기상 분석을 통해, 비가 예보보다 더 넓은 지역에 내리는 경향이 있음을 관계기관에 알렸다.

○ 행정안전부는 산사태로 인한 주택 매몰, 하천변 급류 휩쓸림과 같이 장마철 자주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들며, 사전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.

○ 이어, 반복적인 수해를 막기 위해 우수관·빗물받이 정비 현황과 함께 반지하주택 침수 방지 대책,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 예방과 임시조립 주택 피해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.

- 특히,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맨홀 추락 사고 방지, 용도 폐지 저수지 안전관리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한 사항도 논의했다.

-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“본격적인 장마철에 돌입한 만큼, 정부는 동일한 유형의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간 준비해 온 수해 방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”라고 강조하며,
- “국민 여러분께서도 강수 집중 시간대 외출 자제, 취약지역 접근금지 등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시고, 관계기관에서 대피 안내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	책임자	과 장	지용구 (044-205-5230)
		담당자	사무관	김준하 (044-205-5231)
		담당자	사무관	오병곤 (044-205-5234)




이렇게 행동하세요!


산 사 태 → 붕괴 위험



인근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사전 대피
공무원, 이·통장 등 대피 요청 시 대피소로 이동



산비탈, 급경사지 근처 **피하기**

하천 재해 → 휩쓸림 위험



비 오기 전 점검



야외활동 자제, 물에 잠긴 길 이동 시 발밑 조심
비 내리기 전 배수로 점검, 비 내릴 땐 점검 자제



하천변, 배수로, 해안가 근처 피하기



지하공간 침수 → 침수 위험



지하공간에서 즉시 대피, 수방자재 사전 배치
침수 위험 있는 곳에 주차된 차량 비 내리기 전 이동



지하공간, 지하차도, 침수도로 **피하기**


행정안전부

호우·태풍

이렇게 행동하세요!



- ① 언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나요? ➡ 오전 6~12시 피해가 많이 발생했어요.
- ② 휩쓸림이나 침수사고는 어떤 행동 중에 많이 발생했나요? ➡ 이동하거나 재해예방 활동 중에 많이 발생했어요.
- ③ 산사태로 인한 매몰사고는 어떤 상황에 많이 발생했나요? ➡ 집안에서 일상생활 중에 많이 발생했어요.
- ④ 차량은 비교적 안전할까요? ➡ 주행중인 차량/이동 주차 중에도 인명피해가 많아요.

산지



- ① 어두워지기 전 **안전한 곳**으로 이동
- ② **기상정보 확인**하고 가족, 이웃과 연락



하천

차량



어르신

비바람 올 때
이렇게 행동하세요!



주변 어르신께 알려주세요



날씨 소식을 자주 듣고, 가족과 연락해요
가족, 이웃, 아·동장 전화번호 집에 붙이기



먹는 약, 보청기, 지팡이 미리 챙겨요
안경, 전동휠체어 배터리 등 미리 확인



대피소와 대피소 가는 길 미리 알아봐요
가까운 대피소 읍·면·동사무소에 물어보기



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
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요
이웃과 함께 마을회관 등으로 미리 이동하기



대피 요청이 있으면 신속히 이동해요
공무원, 아·동장이 위험하다고 하면
마을회관 등 대피소로 이동하기



하천 주변, 산길, 논, 배수로로는 위험해요
배수로/논둑, 하천/해안가, 산 주변 등
위험한 장소에 접근금지

침수 대비 지하공간 이용 시 이렇게 행동하세요!



반지하주택, 지하역사·상가 등
지하공간에 물이 들어오거나
하수구 역류 시 즉시 대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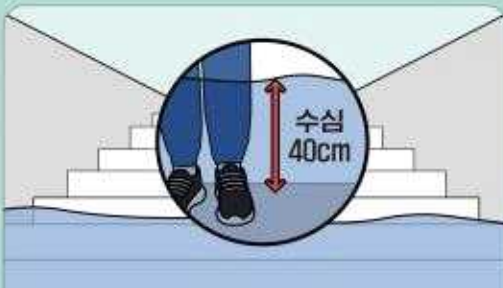
지하주차장에 빗물 유입 시
차량 확인, 이동 등을 위한
주차장 진입 절대 금지



지하계단에 물이 조금이라도
흘러 들어오면 즉시 대피
※ 어린이·노약자 즉시 대피



침수공간 탈출 시 외부 수심이
무릎 이상일 경우 여러명이 힘을 합쳐
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



침수계단 이동 시 물높이가 종아리 높이
(약 40cm) 전 신속히 탈출
※ 가급적 운동화 착용



공동주택 관리자는 지하공간 빗물 유입 전
물막이판 즉시 설치 및 진입금지 안내



침수 대비 차량 이용자는 이렇게 행동하세요!



도로 및 지하차도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경우 절대 진입 금지, 진입 시에는 차량을 두고 즉시 대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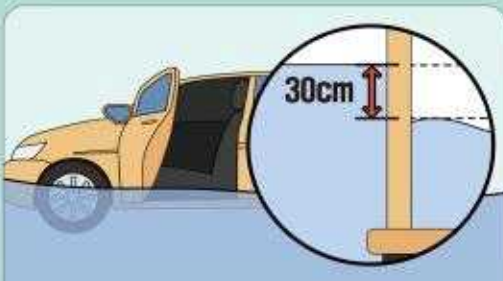
교량, 하천에 물이 넘치면 절대 진입 금지, 우회하거나 안전한 곳에서 수위가 낮아질 때까지 대기



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저속 운전으로 안전한 곳까지 이동 후 비가 약해질 때까지 잠시 대기



타이어 2/3가 잠기기 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, 침수된 경우 운전석 목받침 철재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고 대피



유리창을 깨지 못한 경우 차량 내·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될 때 즉시 차문을 열고 차량에서 탈출



물이 넘치는 교량, 하천에서 차량고립 시 급류 반대쪽 문을 열거나 창문을 깨고 탈출